

사설

대전 택시 승강장 정비 빈틈 없이 진행해야

대전시 내 택시 승강장 중 상당수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한다. 승강장의 위치가 시민들의 보행로와 동떨어져 이용률이 낮은가 하면 불법 주정차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왜 여태껏 방치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내 택시 승강장은 유계 승강장 37개와 표지 승강장 105개 등 모두 142개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실제로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대전역 인근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몇 곳에 불과하다. 설치된 지 오래돼 승객의 편의와 괴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택시 승강장이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다는 것은 택시 운전사는 물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 승강장 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도 택시 승강장의 위치가 현실에

맞지 않아 그냥 길가에서 택시를 잡든가 스마트폰 앱으로 콜하는 게 편하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택시 승강장의 위치가 버스 전용차로와 중복돼 교통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인근에 설치된 택시 승강장은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경우 약 50m 거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대전시 내의 상당수의 택시 승강장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시의 관리부재 때문이다. 대전시 내 택시 승강장의 대부분은 1993년 대전직시포와 맞물려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당시와 비교해 대전의 교통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승용차는 66만 대를 육박해 1993년 당시보다 두 배나 늘었고 택시는 8756대로 공급과잉 현상을 빚으면서 굳이 택시 승강장이 아니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방치한 결과 택시 승강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택시 승강장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전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달 말까지 택시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에서부터 부적합한 위치 설정 문제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를 벌여 적합한 곳으로 옮기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할 계획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주둔한다면 전수조사 시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편의성은 물론 교통흐름까지도 고려한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빈틈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금강칼럼



주형직
율지대 교육

권위주의 시대의 퇴장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탄식하겠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소리 없이 변하고 있다. 특히 요즘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한다. 변화의 중심엔 흔히 권력이라 말하는 힘의 방향이 소수에서 다수로 흐르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역사의 흐름을 변증법으로 보면 권력의 소유가 옮겨가는 과정이다. 오랜 옛날 권력은 왕과 일부 귀족들만의 것이었다. 왕과 귀족들은 권력을 적절하게 나눠가지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체제를 유지했다. 권력 분배가 적절히 조화될 때 세상은 다름이 없고 평안했다. 그러나 권력의 틈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 여지없이 반란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힘없는 백성들은 불만에 떨어야 했다.

시대가 바뀌어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이 세워지게 됐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자 사람들은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고 물질 중심의 사회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본주의의 시작인 것이다. 왕과 귀족에게만 있던 권력은 물질과 자본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새로운 권력계층으로 자본가가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자본가의 권력은 불평등과 불합리한 경제적 배분을 초래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점차 자본가의 권력에 맞서기 시작했다. 권력의 불평등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면서 갈등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갈등과 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했지만 승리한 건 다수의 시민이었다. 저항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된 것이다. 권력은 보다 많은 사람의 손에 옮겨가게 됐고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건 어려운 일이다. 자유가 강조되면 사람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평등이 강조되면 사회가 활력을 잃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분단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사회는 자유가 강조됐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공정한 경쟁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정보는 독점되고 수직적 질서는 더욱 공고해지기 마련이다.

불합리한 상태가 지속됐지만 힘없는 백성들은 참고 지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권력의 담장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렸던 권위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이 광장에 모인 수많은 촛불이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을 켜는 사람들은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고집해 내렸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다. 새로운 질서가 두려운 기성세대가 위기감에 태극기를 들었지만 권위주의의 막은 내려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 고백인 미투 운동 역시 그 연장선상이다. 미투 운동의 함의는 성이 아니라 권력이다. 성폭력이 아니라 권력형 갑질의 고발이다.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항거다. 권력남용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들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여겼기에 미투의 가해자들은 수치는 받아들이지만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억울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도 마찬가지다. 다수 국민이 구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검찰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수사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의 참회와 반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상이 달라진 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사회 모든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 검찰, 법원, 지자체는 물론 학계, 문화계, 민간 기업까지 숨겨왔던 속살을 감추기 어렵게 됐다. 권력자마다 정보를 독점하고 언론을 통제했지만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경쟁에 지친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의를 봐줄 여유가 없다. 권리가 무시되고 존엄성이 훼손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권위에 기대고 이미지와 평판에 의존했다면 달라져야 한다. 내용이 알차고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퇴장은 불가피하다.

웃는다는 것!

OB기자의 세상속으로



우관섭
배재대 비서팀장
전 대전일보 기자

요즘 이런저런 경조사에 가는 일이 자주 생긴다. 경조사에 가면 정말 오랜만이라서 얼굴을 플라봉 정도로 변한 옛 친구나 선·후배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에는 이름과 얼굴이 잘 연결되지 않아 기억을 더듬으며 대화를 나눠야 서서히 누구인지 알게 된다.

하지만 옛날을 떠올리기에 너무도 변한 모습이 영 낯설어 어색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나이에 걸맞지 않게 힘든 여정을 지내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는 모습도 보게 된다.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 남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나이 오십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흔히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에게는 10여 년 전부터 생긴 버릇이 하나 있다. ‘가로 주름 늘리고 세로 주름 줄이기 작전’이다. 가로 주름은 웃어야 생기고, 세로 주름은 찡그리거나 화낼 때 늘어날 것이란 생각에서 착안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조금 껄끄러운 사람 만나 싫은 소리 들어도 찡그리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더불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무를 처리하며 사람을 만나려 한다. 다소 골치 아픈 일이나 복잡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단순하게 접근하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등등 스스로 다독이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애쓴다. 가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느새 미간 사이에 생긴 세로 주름을 손으로 편다. 지인들과 소주잔잔 할 때 기회가 되면 이러한 생각을 자칭 ‘개똥철학’(?!)이라고 설교한 후 따라해 볼

것을 권하기도 한다.

또 주변에 있는 밝고 선한 인상을 지닌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관계로 누구라고 지명하여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 인성 선배 한 분이 계시다. 이 선배와의 인연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취재원과 기자로 만났으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도 친하게 됐다. 오랫동안 모진 세파(?)를 겪었지만 이 선배의 인상은 정말 맑고 밝다. 60세가 넘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은 제 나이를 맞추지를 못할 정도다. 얼마 전 페이스북 북 친구 중 한 분이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서 올린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연연히 남자와 여자로 다른데 선배의 선하고 맑은 이미지가 이 폐전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보는 것 같아 “누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가 누구를 닮았나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아마도 두 분 모두 평생 동안 바른 생각으로 윤희하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림을 통해서도 종종 마음을 가다듬기도 한다. 바로 이순구 화가의 ‘웃는 얼굴’ 시리즈를 보다보면 나 도 모르게 어릴 적 순진무구한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웃는 얼굴 작품을 접할 때마다 저절로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는다. 추측하건데 미술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위로, 행복을 안겨주는 이순구 화가 또한 마냥 웃고 행복한 마음으로 작업할 것이 분명하다.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생각한다. “웃은 낯(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一笑一少)”, “우리가 가장 헛되이 보낸 날들은 웃지 않았던 날들이다.(상포트)” 등 예부터 동서고금에 웃음과 관련된 속담과 명언이 많다. 최근에 서양 철학사 속 웃음의 체보학을 탐구한 ‘웃음의 철학’(만프레트 가이어)을 읽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웃음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사상과 논쟁을 정리하여 읽기에 그리 부담되지 않는 책이다.

요즘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면서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웃자.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웃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핫클릭

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도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 경우 독일은 1500유로(약 190 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일본은 5만 이하 징역이나 10만 엔(약 102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다.

작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3.4%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교황이 자식을 낳고 첩을 뒀다니

양태자 박사의 5분 중세사 교황청 일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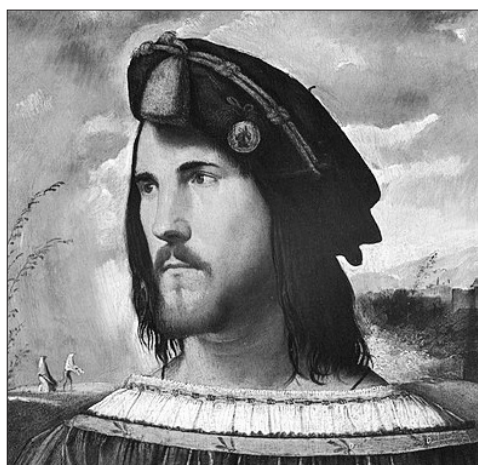
(전편에 이어서) 일기 내용은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일을 더 많이 기록했다. 그의 글을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알렉산더 교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기로 하자. 그는 칼리시 3세(교황등극1455-)의 조카였다. 삼촌 덕분에 그는 추기경이 되었고 드디어 돈으로 교황자리에도 올랐다. 그는 교황이지만 첩을 두고선 9명의 자식을 두었다 한다. 이 교황과 그의 자식들이 뿌렸던 얘기는 문화사에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특히 그와 그의 딸 루크레치아와 얽힌 얘기는 너무 유명했다 보니 유럽에선 영화까지 나올 정도다. 부르크하르트스가 이런 교황 옆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일기로 기록했으니 얼마나 생생하고 흥미진진하겠는가? 많은 내용을 다 옮기기에선 지면분제가 있으니 한 단편만 소개한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일기에는 그의 딸 루크레치아와 아들 기오바니에 대해서다.

일기내용 시작: 1494년 5월 7일 수요일에는 교황 아들 알렉산더 6세의 아들 고프레도(Gofredo)와 시칠리아의 왕 알폰소 2세의 딸 잔키아(Sancia)와 결혼 계약서(당시는 결혼하기 전에 집안 간에 늘 계약서를 썼다)가 성사되었다. 잔키아는 알폰소 2세 왕의 혼외에서 낳은 딸이다. 1494년 5월 8일 목요일 그리스도 승천 축일, 천사 미카엘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앞으로 사돈이 될 알폰소 왕의 대관식이 있었다.

왕은 진주와 보석이 달린 옷을 입었고, 대관식은 아주 성대하고 호화스럽게 치렀다. 이 대관식에서 입은 그의 옷값이 자그마치 약 1000두카텐이다. 우리는 당시 돈 화폐인 두카텐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교수로서 일했던 마르틴 루터의 당시 일년



알렉산더 교황의 아들 체사레

치 월급을 비교차원에서 자주 언급한다. 루터는 일년치 교수월급으로 8두카텐(오늘날로 치면 유로)을 받았다고 하니, 왕이 입은 이 옷값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임이 틀림없다. 루터가 안 먹고 안 쓰고 단지 10년간 모으기만 한다면, 이런 돈을 손에 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체 어느 정도의 호화관이었을까? 그가 입었던 옷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부르크하르트스는 그의 일기에 이 왕의 대관식 진행을 상세히 기록했지만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간다.

미세먼지 이기는 생활수칙 ... “물 자주 마셔라”

생활과 건강

수십미터 거리에 있는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도 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내놓을만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만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외출 때 마스크 쓰기 외출 후 손 씻기는 ‘기본 중의 기

본’으로 강조되는 대목이다.일반적으로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좋다.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인 식품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좋다.

코와 호흡기 점막의 수분량이 많아져서 먼지를 잘 흡착해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가글과 양치질, 비강 내 생리식염수 세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강일보

www.ggilbo.com

회장 김용찬 발행·편집인 윤성국 인쇄인 임재형 주필 정세민 편집국장 이인희			
(우) 35229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3 대우토피아 8층 대표전화 042-346-8000 FAX 042-346-8001-2			
뉴스미더군 070-7844-7731	정치교육부 070-7844-7721	경제문화부 070-7844-7716	구독안내
사회부 070-7844-7723	사진부 070-7844-7729	광고문의 070-7844-7706-7	070-7844-7707
2010년 4월 12일 등록번호 대전 가00021호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만 3000원, 1부 700원			
독자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opinion@ggilbo.com			